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2)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48호(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발췌

6월호 게재

1.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중요성
2. 사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월호 게재

3. 사료 정책에 대한 축산전문가 평가
4.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로드맵

3. 사료 정책에 대한 축산전문가 평가

▣ 축산전문가 설문조사

-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에 대해 축산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대상인 축산전문가는 ‘정부 관계자(21명)’, ‘교수 및 연구자(32명)’, ‘축산업계(20명)’, ‘사료업계(6명)’의 4그룹으로 총 79명임
- 설문내용은 사료곡물의 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롯하여, 정책도입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및 지속시간을 의미하는 ‘접근방법’, 목표 달성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정책의 효과’, 정책 집행의 비용(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정책의 비용’, 정부가 해당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시행가능성’, 정책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대상자의 수용성’ 등임

▣ 정책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 정책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는 ‘조사료 공급 확대(4.0)’, ‘수입원료 및 수입곡의 다양화(3.9)’,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3.9)’, ‘부존자원이용(에코피드)(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와 연구자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축산업계와 사료업계는 다소 상이
 - 축산업계는 ‘사료가격안정기금(4.5)’,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3.9)’,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3.9)’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 사료업계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4.2)’, ‘수입원료 및 수입곡의 다양화(3.8)’, ‘사료곡물 할당관세(3.8)’를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

표 10. 사료 관련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결과

정책대안	상대적 중요도				
	전체	정부	연구자	축산업계	사료업계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3.6	3.7	3.6	3.8	2.7
국제곡물 유통회사 설립	3.4	3.3	3.5	3.4	2.7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3.9	3.8	4.1	3.6	3.8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3.5	3.2	3.8	3.5	3.5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3.7	3.4	4.0	3.8	2.8
사료곡물 할당관세	3.6	3.8	3.6	3.5	3.8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3.6	3.5	3.8	3.3	3.2
사료가격안정기금	3.4	2.0	3.9	4.5	2.0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	2.9	2.6	3.0	3.7	1.3
사료구매자금 지원	3.4	3.2	3.4	3.7	3.5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3.5	3.3	3.3	3.9	4.2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3.9	3.8	4.1	3.9	3.5
조사료 공급 확대	4.0	4.1	4.2	3.6	3.2
부존자원이용(에코피드)	3.8	3.8	4.2	3.6	2.7

주 1: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위를 나타냄.

▣ 정책 도입의 시기

- 단기사업(3년 이내)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사료곡물 할당관세’,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등을 지적함
- 중기사업(3~5년)으로는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조사료 공급 확대’, ‘부존자원이용(에코피드)’, ‘국제곡물 유통회사 설립’, ‘사료가격안정기금’ 등을 지적함
- 장기사업(5년 이상)으로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등을 지적함

▣ 정책의 효과와 비용

- 제시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화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3.7)’, ‘사료구매자금 지원(3.7)’,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3.7)’등이 높게 나타남
 - ‘사료가격안정기금(3.1)’과 ‘가격인상 억제(3.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제시된 정책시행의 비용(정부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4.5)’,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4.3)’,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4.0)’등이 높게 나타남
 - ‘사료곡물 할당관세(2.5)’,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2.5)’ 등이 낮게 나타남

» 집중탐구

표 11. 사료 관련 정책의 접근방법, 효과, 비용 조사 결과

정책대안	접근방법	정책의 효과	정책의 비용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장기	3.7	4.3
국제곡물 유통회사 설립	중기	3.4	3.9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단기	3.6	2.7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단기	3.4	2.9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중기	3.6	4.0
사료곡물 할당관세	단기	3.6	2.5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단기	3.4	2.5
사료가격안정기금	중기	3.2	4.5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	단기	3.1	3.3
사료구매자금 지원	단기	3.7	3.9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단기	3.7	3.9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장기	3.6	3.3
조사료 공급 확대	중기	3.8	3.5
부존자원이용(에코피드)	중기	3.5	3.1

주 1: 1-단기 (3년 이내), 2-중기 (3~5 년), 3-장기 (5년 이상)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실시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 위를 나타냄

■ 정책의 시행 가능성

-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사료곡물 할당관세(4.0)’가 가장 높았으며, ‘조사료 공급 확대(3.8)’, 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3.7),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3.7)’, ‘사료구매자금 지원(3.6)’순으로 나타남
- ‘사료가격안정기금(2.8)’과 ‘가격인상 억제(2.8)’는 시행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축산업계가 시행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 정

부와 사료업계는 매우 낮게 평가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임

-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는 모든 전문가 그룹이 낮게 평가함

■ 정책 대상의 수용성

- 정책 대상의 수용성은 ‘사료구매자금 지원(4.1)’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4.0)’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료곡물 할당관세(3.8)’와 ‘조사료 공급 확대(3.8)’,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3.6)’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음

-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2,7)'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연구자와 축산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사료업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분

야별 응답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료곡물 할당관세'는 정부와 사료업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연구자와 축산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표 12. 사료 관련 정책의 시행가능성 조사 결과

정책대안	시행가능성				
	전체	정부	연구자	축산업계	사료업계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3.2	3.3	3.1	3.3	2.5
국제곡물 유통회사 설립	3.2	3.2	3.2	3.3	2.7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3.7	3.9	3.8	3.5	2.7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3.5	3.1	3.7	3.8	2.5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3.3	3.4	3.4	3.3	1.7
사료곡물 할당관세	4.0	4.4	3.6	3.9	4.7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3.4	3.7	3.3	3.6	2.8
사료가격안정기금	2.8	1.6	3.4	3.9	1.0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	2.8	2.4	2.7	3.5	2.7
사료구매자금 지원	3.6	4.0	3.1	3.9	4.3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3.7	4.1	3.3	3.6	4.8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3.1	3.1	3.3	3.0	3.0
조사료 공급 확대	3.8	4.0	3.7	3.6	4.7
부존자원이용(에코피드)	3.2	3.5	3.3	3.1	2.5

주 1: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위를 나타냄.

표13. 사료관련 정책의 수용성 조사 결과

정책대안	정책 수용성				
	전체	정부	연구자	축산업계	사료업계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3.3	3.2	3.3	3.6	2.5
국제곡물 유통회사 설립	3.2	3.1	3.2	3.5	2.3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3.6	3.4	3.8	3.3	3.8

» 집중탐구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3.5	3.0	3.5	3.9	3.7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3.5	3.3	3.7	4.1	1.8
사료곡물 할당관세	3.8	4.3	3.5	3.6	4.7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3.4	3.6	3.3	3.6	3.3
사료가격안정기금	3.2	2.5	3.5	4.2	1.3
가격인상 억제(사료가격 조절)	2.7	2.6	2.8	3.4	1.2
사료구매자금 지원	4.1	4.4	3.8	4.2	4.3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4.0	4.3	3.6	4.1	4.8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3.4	3.3	3.3	3.5	3.5
조사료 공급 확대	3.8	3.9	3.7	3.9	3.5
부존자원이용(에코피드)	3.3	3.5	3.3	3.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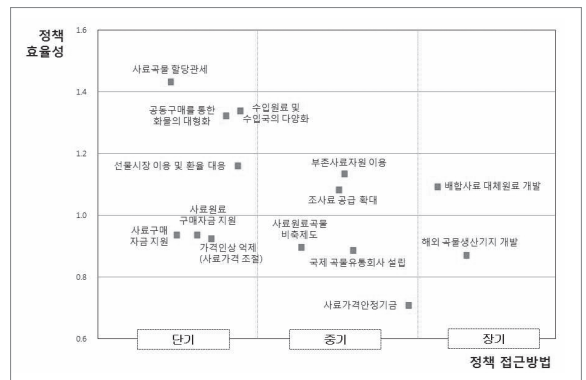
주 1: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2: 굵은 글씨는 각 분야별 1~4 위를 나타냄.

4.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로드맵

▣ 사료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접근 방법

- 축산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료 정책의 효율성은 ‘사료곡물 할당관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순으로 나타남
 - ‘사료가격안정기금’은 효율성이 가장 낮은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사료원료곡물비축제도’, ‘해외 곡물유통회사 설립’,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도 효율성이 낮게 평가됨
- ‘단기’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정책으로 갈수록 효율성이 낮게 측정되었음
 - 장기 정책일수록 단기 정책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사료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접근방법



주 1: 정책의 효율성 = (정책의 효과 점수 / 정책의 비용 점수)
 2: 단기(3년 이내), 중기(3~5년), 장기(5년 이상)로 구분.

▣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의 종합 평가

- 효율성이 높은 단기정책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정책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정책 중 ‘사료곡물 할당과세’는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미 대부분의 곡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어 추가 여지는 적음
- 따라서 곡물수입업체와 사료업체가 주축이 되어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와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을 추진해야 함
-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은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효과보다는 농가와 사료업체의 경영안정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
- 중기정책으로 ‘부존사료자원 이용’과 ‘조사료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와 ‘국제 곡물유통회사 설립’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정책의 효율성이 매우 낮

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음

- 장기 과제로는 우선적으로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으로 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의 로드맵

- 앞에서 검토한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작성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음
- 특히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된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나 ‘사료가격안정기금’등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규제 개선, 기금 조성 등의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임

그림 4.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화 정책 로드맵

